

감귤원 방화해충의 발생종류 및 피해상황과 방제법

김동환, 김광식, 권혁모¹

감귤시험장, ¹제주시시험장 원예과

개화기에 감귤원에 비래하여 피해를 주는 방화해충의 종류 및 해충별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방제 약제 선발 및 약제살포시기에 따른 방제시험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방화해충의 종류로는 애초록꽃무지(*Oxyectonia vucunda* Faldermann)를 포함하여 총채벌레 8종, 흑파리 1종, 밀빠진벌레 2종, 쇠벌레 1종, 풍뎅이 2종 등 총 7과 15종이 발견되었으며, 그 중 꽃노랑총채벌레(*Frankliniella occidentalis* P.)와 밀빠진벌레(*Epuraea domina* R., *Epuraea fallax* G.)의 발생이 많았다.

만개기 이후에 이들 해충에 의한 자방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1998년에는 26.3%, 1999년에는 1.8%로 연차간 발생량의 차이가 매우 컸다. 수확기에 방화해충에 의한 피해과율을 조사한 결과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과율은 1998년-4.0%, 1999년-1.8%였으며, 기타해충(밀빠진벌레과, 쇠벌레과, 애초록꽃무지, 풍뎅이 등)에 의한 피해과율은 1998년-1.3%, 1999년-0.1%로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하였고, 역시 연차간 변이가 매우 컸다.

방제약제로는 그로포·주론 수화제와 에토펜프록스·파프 수화제의 효과가 좋았고, 그로포·주론 수화제에 의한 살포시기별 방화해충에 의한 피해과율은 개화초 1회 살포시에는 5.3%로 개화초와 만개후 2회 살포시의 3.6%보다 효과가 다소 낮았으나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개화초 1회가 방제 적기인 것으로 나타났다.